

“음식도 스토리텔링 중요…비건김치 통했죠”

김윤성(㈜로열 프레시 대표)

2021년 창업 후 동강대 BI센터 입주

신선·가공식품 유통 브랜드 론칭 활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등 참여

“내년에는 이너뷰티·육류시장 도전장”

“음식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최신 트렌드인 ‘비건’을 주제로 한 비건 김치를 출시하는 등 소비자는 물론 유통사까지 만족시키는 제품 개발로 소비 가치를 더 올리겠습니다.”

F&B 브랜딩 업체 ㈜로열 프레시(Royal Fresh)의 김윤성(33·사진) 대표는 2021년 ‘소비자에게 언제나 최고의 식품만 유통하겠다’는 목표로 1인 창업해 신선·가공식품 유통 브랜드를 론칭했다. 2022년에는 동강대학교 창업보육(BI) 센터에 입주해 사업의 폭을 넓혔다.

그는 창업 초기 비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자 ‘비건 김치’를 떠올리며 준비했다. 국내 비건 시장은 대기업을 비롯해 신생 창업 기업까지 뛰어들며 급성장했지만 김치의 경우 특수성 때문에 ‘비건 김치’는 아직까지 경쟁업체가 많지 않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스토리텔링을 강조했다. 식품도 ‘스토리’가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로열 프레시의 비건 김치는 다양한 애깃거리가 있다. 일단 배추는 해남과 강원도에서 당일 경매를 받는다. 그리고 냄새에 민감한 소비자를 배려해 젖갈을 넣지 않는다. 젖갈 대신 소금과 한식 간장을 사용한다. 특히 한식 간장의 경우 국내 유일의 3대째 콩 농사를 짓는 경남 고령 농가에서 제공받는다”고 설명했다.



로열 프레시의 비건김치.

덕분에 ‘스타트업’이 부담스러워하는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어 과감히 투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고 무엇보다 재구매율이 높아 기대 이상이다. 일본과 미국 수출도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로열 프레시는 동강대 BI센터가 지원하는 입주기업 보육역량강화 사업, 수도권 IR 등을 통해 영업 4개월 만에 매출 1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올해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특화 사업(생활혁신 ENJOY Program in 광주)’에 참여했다.

이 같은 외부 지원을 통해 입지를 탄탄히 다진 김 대표는 향후 사업 아이템을 ‘모든 먹거리’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2025년 비건 김치에 이어 장아찌 등 반찬 브랜드까지 30개 이상 제품에 공을 들인 그는 내년에는 이너뷰티와 육류 시장에 도전장을 낸다.

그는 “음료의 경우 국내시장의 최신 트렌드는 제로와 단백질이다. 2026년 ㈜로열 프레시의 타깃 시장이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웃음박사 김영식 교수
목포과학대 초청강연 성료



목포과학대학교는 지난 9일 RISE사업으로 선정된 웰에이징 특화 대학 비전 선포식을 기념해 웃음박사 김영식(GITC대학교 부총장·사진) 교수의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김영식 교수는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 웰에이징 문화의 이해와 웃음건강학’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강연을 통해 “21세기 인공지능시대에 인간의 존엄성과 산업전략으로 웃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초점을 두고 전략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웰에이징 특화 대학의 미래전략”을 기반으로 한 대학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강연에 참석한 목포과학대 구성원들은 웰에이징 특화 대학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비전과 슬로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삼 교육혁신처장은 “참석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쾌한 강연이었다”면서 “이번 강연을 통해 대학 브랜드 핵심 메시지와 BI, 슬로건을 최종 확정하고 웰에이징 기반 교육과 전공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다양한 방송과 강연을 통해 웃음을 전파하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으며, 저서로는 ‘웃음 요가로의 초대’, ‘웃음으로 소통하라’ 등이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은봉희 남구의원, 작은음악회 관람·현장 점검

은봉희(사진 뒷줄 왼쪽서 네 번째) 광주 남구의원은 최근 남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효천광장 작은음악회·겨울 발레 갤러 콘서트’를 관람하고 행사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은 의원은 공연 관람 후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이라며 “일상 속에서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형우기자

목포시의사회, 이웃사랑·통합돌봄 2천만원 쾌척

연말을 맞아 목포 지역의료계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통큰 기부를 실천,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목포시는 10일 “전날 목포시의사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천만원을 (재)목포복지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저소득 위기가구와 통합돌봄 대상자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1천만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구의 긴급 생계비로, 나머지 1천만원은 ‘목포형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하는데 투입된다.

통합돌봄 후원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

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작은음악회는 클래식 등을 생활권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 문화 접근성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은 의원은 또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형우기자



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명원 목포시의사회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돌봄이 절실한 분들에게 의료계의 작은 정성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광주 북구 ‘제1회 무등문학상 시상식’ 성료

광주 북구는 10일 “지난해 12월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무등문학상을 제정, 1주년인 이날 광주문화관 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북구의회 관계자, 문학계 인사, 수상자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상은 김종광 소설가가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스러져가는 농촌을 배경으로 변방으로 밀려난 이들의 삶을 리얼리즘으로 풀어내고 웃음의 미학과 문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작품상 운문 부문에는 손석호 시인의 ‘울음을 망치질하다’ 외 4편이 이름을 올렸다.

산문·평론 부문은 서영지 작가의 ‘어쩌면 오

늘’이 선정됐다.

시상식과 함께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영상 상영, ‘한강 문학과 노벨문학상’을 주제로 한 강연, 한강 작가 플레이리스트 공연과 클래식 연주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문인 북구청장은 “무등문학상이 지역을 대표하는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찬웅기자



이날 행사에는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북구의회 관계자, 문학계 인사, 수상자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상은 김종광 소설가가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스러져가는 농촌을 배경으로

전남도, 사랑의 김장김치 5천200박스 전달

전남도는 10일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2025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서 전남사회복지협의회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부인인 정라미 여사,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는 매년 겨울을 앞두고 진행되는 행사로 2014년부터 시작돼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3억5천만원을 후원받아 약 2만5천포기(5천200박스)의 김장 김치를 도내 42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겨울철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이롭고 힘든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모두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행복한 전남이 되도록 봉사 정신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나눔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정광의 회장(전 광주보훈병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가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과 공동체의식을 실천하는 한빛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승균기자

여수소방 구급대원 3명에 ‘브레인 세이버’ 인증서 수여

여수소방서는 “최근 급성 뇌출증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데 기여한 구급대원 3명에게 ‘브레인 세이버(Brain Saver)’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브레인 세이버는 급성 뇌출증 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이송해 뇌 기능 손상을 막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대원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원들은 여수소방서 소방정대에서 근무하는 박민선 소방사, 김수미 소방위, 주명강 소방교등으로 이들은 지난 8월 16일 급성 뇌출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현장에서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함께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했다.

당시 의료진은 “현장 대원들의 빠른 판단과 정확한 처치 덕분에 환자가 심각한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서승호 여수소방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 대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이 빛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여수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품질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결혼

▲문명열(전 금파공고 교사)·유민숙씨 아들 준희(해남 우수영초 교사)군, 윤영기(광주일보 정치·경제담당 에디터)·김선의씨 딸 해원(해남 황산초 교사)양=13일(토) 오후 12시 광주 글로리아웨딩홀(옛 데일리웨딩컨벤션) 1층 라비아홀.

▲김성희·김광순씨 아들 옥진군, 이해용·박옥실씨 딸 송희양=13일(토) 오후 4시 메리포아 웨딩홀 메이에르홀(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빌딩(0507-1401-4170).

▲이장현·강영희씨 아들 원창군, 신승식·오형욱씨 딸 현선양=13일(토) 낮 12시 20분 JnJ아트 컨벤션 2층 제이드팰리스홀(경기 평택시 비전5로 20-46) 031-653-5300.



또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송영길 푸른아시아 상임고문에 공로패가 수여됐다.

앞서 식전공연에서는 소프라노 김선희가 ‘그리운 금강산’ 등 2곡을 열창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연상기자

한국인권교육원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식’

사단법인 한국인권교육원(이사장 위인백·원장 김재형)은 10일 오후 광주 5·18 교육관에서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홍기대 국제엔에스티 광주전남지부 이사장의 세계인권선언 낭독, 위인백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의 기념사에 이어 장희국 전 광주시 교육감이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주제로 기조강연 했다.

기념식에 이은 학술행사에서는 강숙영 전 전남도 교육청 장학관이 ‘교권회복과 인권존중’을 주제로 강연하고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 등이 펼쳐졌다.

기념식에 이은 학술행사에서는 강숙영 전 전남도 교육청 장학관이 ‘교권회복과 인권존중’을 주제로 강연하고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 등이 펼쳐졌다.